

## 선정릉 산책길 따라 만난 식물<sup>1)</sup>

박 대 문<sup>2)</sup>

칼럼니스트

### 선정릉에 대하여

서울시 강남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선정릉은 조선왕조 제9대 성종대왕의 능인 선릉과 계비 정현왕후의 능 그리고 성종의 아들이며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조선왕조 제11대 중종대왕의 나 홀로 유택인 정릉(靖陵)이 있습니다. 이곳은 강남 도심의 초현대식 빌딩 숲과 지하철 2호선, 9호선, 분당선에 에어싸인 곳입니다. 서울 도심의 삭막한 아스팔트 도로와 빌딩 숲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귀하고 반갑고 소중한 푸른 숲 보석이며 서울 강남의 녹색 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선정릉의 역사적 배경과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풀꽃과 수목의 식생을 살펴보고자 여름 더위가 한창인 7월에 선정릉을 탐방하였습니다.

우선 선정릉에 있는 3기의 능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능은 단순히 3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주인공 삶의 한평생 전, 후를 되새겨 보면 조선왕조 초기에서 중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왕실의 희비와 영육이 엮히고설켜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곳은 성종과 중종의 두

임금과 성종 계비의 능이지만 두 왕의 배후에서 조선왕조를 움직였던 궁중 여걸 3인이라 할 수 있는 세조비 정희왕후, 소혜왕후(인수대비), 중종비 문정왕후와 깊은 인연의 고리가 얽힌 역사의 유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세 여인과 성종과의 관계를 평범한 가문의 가계도로 말하자면 성종을 중심으로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입니다. 세조비 정희왕후(성종 할머니)는 성종의 왕위 등극을 주도한 여인이며 인수대비(소혜왕후)는 성종의 생모로서 폐비 윤 씨 사건에 깊이 관여하였고 결국 손자 연산군 머리에 들어 밝혀 절명한 여인입니다. 성종의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동생인 중종의 두 번째 계비 문정왕후는 태어난 지 몇새 만에 산후병으로 어머니를 잃은 인종을 친자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나 명종을 낳은 후 친자의 등극을 위한 강한 어머니로 변신하여 국정의 중심에서 남성들과의 세력 다툼에 뛰어들고 인종이 죽고 아들 명종이 등극하자 명종의 어머니로서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인종을 낳고 몇새 만에 산후병으로 죽은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경왕후와 함께 있는 중종의 묘를 사후 자신과 함께 있는 능으로 만들 욕심에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西三陵)에서 이

1)Plants Met at Walking Trails on Seolleung and Jeongneung Royal Tombs

2)PARK, Daemoon, Freecolumn Group Columnist; E-mail: dmpark05@naver.com

곳 강남 삼성동으로 이장하여 오늘의 정릉을 만든 여인입니다.

성종과 중종 그리고 조선왕조의 세 여걸을 생각하면서 도심의 녹색 섬인 선정릉을 산책하는 동안 느낀 것은 이곳의 식물상이 매우 다양하고 왕릉으로서 격조를 잃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선릉 산책길 주변 식물

선정릉 산책길을 따라 만나본 식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탐방 목적이 주로 산책로 주변 주요 식물상을 살펴보고자 함이었기에 산책로를 따라 역사문화관, 선릉, 정현왕후릉을 지나 중종의 능인 정릉을 거쳐 재실 앞을 지나 입구 매표소로 나오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매표소 입구를 지나면 바로 생울타리로 조성한 쥐똥나무가 공원 경계 담을 따라 무성

하게 자라고 있고 좁작살나무와 흰좁작살나무가 산책로 따라 심어져 있으며 그사이에는 호장근이 넉넉한 이파리에 하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철 이른 들 국화처럼 하얀 꽃이 피어 있어 살펴보니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개쑥부쟁이가 아닌 가새쑥부쟁이가 청초한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어 새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산책로 생울타리 매자나무에는 예리한 가시와 달리 고운 열매가 탕글탱글 영글어 가고 있었고 바로 그 곁에는 꽃이 핀 흔적만이 남은 불두화가 한창 꽃이 피었을 때의 화려하고 풍성한 모습을 말해 주는 듯했습니다. 불두화는 백당나무를 개량한 종인데 꽃의 모양이 부처의 머리처럼 곱슬곱슬하고 부처가 태어난 4월 초과일을 전후해 꽃이 만발하므로 불두화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절에서 정원수로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

매표소를 지나 곧장 역사문화관에 들러 이곳 능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익힌 후



그림 1. 선정릉 식생 탐사 경로도

매표소 뒤 좌측으로 연결된 산책로를 따라 가면 선릉의 홍살문과 정자각으로 이어집니다. 부드럽고 깔끔한 흙길 산책로 바로 옆에는 작은 나무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책로 옆의 작은 관목, 반짝반짝 빛나는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가 있어 살펴보니 병아리꽃나무입니다. 석회암지대에 자라는 꽃나무인데 5월에 연둛빛 새잎과 피어나는 순결한 흰 꽃이 병아리처럼 보이고 까만 열매는 병아리의 주둥이를 닮았다 하여 병아리꽃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꽃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서울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나무입니다. 열매는 까맣고 광택이 있는데 열매가 다 익어도 가지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 겨우내 붙어있어 불거리가 됩니다.

병아리꽃나무와 함께 어울려 개나리꽃과 삼색병꽃나무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개나리꽃이야 봄을 대표하는 꽃이라서 다들 알지만 거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마침 이곳 개나리에는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개나리 열매 말린 것을 한방에서 연교라 하는 데, 한열(寒熱), 화농성 질환, 신장염, 습진 등에 약용으로 씁니다. 다행스럽게도 병아리꽃나무에도 삼색병꽃나무에도 늦둥이 꽃이 한 개씩 붙어 있어서 7월 여름에 귀한 봄꽃을 만나는 운도 따라 주었습니다.

선릉의 홍살문으로 가기 위해 산책로에서 좌측 샅길로 접어들면서 한창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쉬나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홍살문 앞 공터에서 담장까지의 공간에는 오갈피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원추리, 가새쑥부쟁이, 비비추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잔디밭 가운데 정자각을 관람하고 참도를 따라 비각을 지나 산책로에 들어서면 종류가 다른 몇 종의 단풍나무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단풍빛깔이 고운 애

기단풍나무와 단풍나무 그리고 중국단풍나무입니다. 비각 옆에는 딱총나무가 있고 선릉 비탈길 바로 앞에는 백당나무 서너 그루가 있습니다. 한겨울 눈이 내렸을 때 백당나무의 빨간 열매가 백설 위에 빛나는 홍보석처럼 곱게 빛날 것이며 겨울 산새의 먹이도 될 수 있는 나무입니다.

### 정현왕후릉 산책길 주변 식물

백당나무 옆에는 잠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정현왕후릉을 향해 올라가면 덜꿩나무, 복자기나무, 때죽나무가 길옆에 서 있습니다. 때죽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매달려 있었고 그 뒤에는 갈참, 신갈, 상수리나무 등 참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현왕후릉 오르막길 숲에는 산딸기, 명석딸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정현왕후릉 계단 좌우에는 좀작살나무와 흰좀작살나무가 어우러져 계단 생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는 파리풀이 앙증맞게 하얀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정현왕후릉을 지나면 조그마한 언덕이 나오는데 그곳에도 잠시 앉아 쉬어 갈 수 있는 벤치가 있고 이 벤치를 지나 좌측으로 다양한 야초들이 서로 엉켜 풀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주가리, 마, 돌의 등 덩굴식물이 자라고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개망초, 애기똥풀도 무성하게 풀밭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사이에 어느 새의 배설물을 통해 옮겨졌는지 왜목련의 자연 묘목이 기세 좋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현왕후릉을 지나 종종의 능인 정릉을 가기 위해서는 산책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와야 합니다. 정릉은 부모의 두 능 발치에 있는 형국인데 조선왕릉 40기 중 왕과 왕비의 무덤이 함께 있지 않은 2기 중 하나입니다. 즉, 1대 태조의 건원릉과 11대 종종의 정릉

이 바로 왕만 홀로 있는 단릉입니다. 중종은 죽은 후 왕위에 오른 인종이 자신을 낳고 산후병으로 엿새 만에 세상을 뜬 장경왕후와 함께 능을 만들었는데 중종의 두 번째 계비인 문정왕후가 자신과 함께 능을 조성하고자 중종의 능만 따로 떼어 지금의 삼성동으로 이장하였으나 결국 문정왕후는 태릉에 묻히게 되어 중종은 지금의 정릉에 홀로 남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현왕후릉을 지나니 북쪽 하늘이 연분홍꽃에 가릴 만큼 커다란 자귀나무 한 그루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쪽동백나무가 자라고 있고 길가 땅바닥에는 종지나물로 보이는 제비꽃류가 무리를 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북쪽 담장 쪽 산책로를 조금 지나니 우거진 소나무 숲 사이에 스트로브잣나무도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 정릉 주변 식물과 오리나무 소 군락에 대한 소고(小考)

정릉을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 좌측 언덕에 싸리나무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싸리나무는 자잘한 붉은 꽃이 나무줄기 끝에 총상화서로 피는데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매우 짙칙칙하고 매혹적인 색깔과 모습을 지닌 꽃입니다. 우측 언덕 아래에는 오리나무가 남쪽 담장까지 여러 그루가 자라고 있으며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싸리나무, 족제비싸리나무, 때죽나무가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싸리나무를 감고 오르며 칩덩굴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푸드등 평이 날고 다람쥐가 사람 따라 먹거리를 달라는 듯 들고나고 제법 숲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눈에 띄는 초본류로는 맥문동, 개맥문동이 자라고 있었으며 풀거북꼬리가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정릉의 터는 그리 낮지는 않았으나 정자각과 홍살문은 능 아래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정자각과 홍살문을 지나 다시 우측으로 연결된 산책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오면 여러 그루의 오리나무가 소 군락을 지어 자라고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선정릉의 식물상 중에서 매우 관심을 가질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처음 입구에서 선정릉의 정자각을 지나면 비각 뒤편에 아릅드리 오리나무 몇 그루가 단풍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곳과는 달리 정릉 옆 저지대에는 여러 그루가 느릅나무와 함께 소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방오리나무나 물오리나무가 아닌 오리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점이 관심을 끌게 합니다. 수령이 꽤 되어 보이는 오리나무가 한데 어울려 작은 군락을 이루고 있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생태숲이라서 그 유래와 의미를 한 번쯤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오리나무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지역이 문정왕후가 중종과 함께 묻히고자 원하는 곳이었음에도 문정왕후의 묘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한강 침수지역인 저지대라서 자리가 좋지 않다고 하여 태릉에 묘를 조성한 점으로 보아 이곳은 500여 년 전부터 저습지였으며 저습지 극상림의 천이(遷移) 마지막 종(種)이 오리나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은 자연스럽게 조성된 습지의 극상림 천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오리나무 군락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흔히 오리나무 명칭의 유래는 이 나무를 길가에 이정표 삼아 5리(五里)마다 심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리마다 이 나무를 심은 이유, 5리마다 한 그루씩 심었는지, 줄지어 심었는지, 심은 방



그림 2. 선정릉에 자라는 주요 초본류

법과 관리 및 왜 하필 오리나무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나 유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기록으로 「한국식물생태보감, 김종원 저, 2013」에 매우 중요하고 흥미할 만한 내용이 있어 이를 중심으로 정

리해보면 우선 오리나무에서 ‘오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범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19세기 초에 정립된 5리, 10리라는 단순한 거리 개념이 아니며 거리 단위가 정립된 그때까지 이 나무가 이름도 없다가 비로소 이때부터 오리나



그림 3. 선정릉에 자라는 주요 목본류

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리나무는 정착 농경사회 훨씬 이전 고대사회부터 이미 우리 생활에 친근하게 밀착된 나무이었으므로 아주 오랜 고대사회부터 매우 신성감을 지니고 있는 이름의 ‘오리나무’였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즉, 사람의 얼굴과 얼을 의미하며 매우 중요한 정신

세계의 언어인 ‘오리’를 이 나무에 붙여 ‘오리나무’라는 이름이 전해 왔지 거리 표시목으로 심으면서 비로소 ‘오리나무’라 칭했다는 것은 어찌 된 연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고대부터 우리 정신세계에서 오리나무가 가지고 있는 신성감을 제거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유추를 하게 된 이유로서 「한국 식물생태보감, 김중원 저, 2013」에 따르면 오리나무는 저습지 극상림의 주인공으로 천이 마지막 단계의 종(種)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리나무는 농경문화가 태동했던 시대에 사람의 주 생활 터전이라 할 수 있는 저습지, 즉 논과 밭이 가능하고 야생 철새인 오리의 서식처가 되기도 했던 저습지의 잠재자연식생 주인공으로서 존재했기에 선사 농경문화와 그 인연이 깊고 깊으며 정착 농경문화가 생기기도 전에 이 나무는 우리 옛 사람에게 신성목(神聖木) 같은 존재였을 것이며 이러한 나무가 19세기 초까지 이름도 없이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오리는 알(생명)을 낳는 새(乙, 을)를 대표하는 동물이며, 고대 사회에서 하늘, 인간, 땅을 이어주는 신성한 매개 생명체로서 하늘과 땅의 소식을 전하는 신비롭고 성스러운 매개체로 받아들여 ‘숫대’ 위에 올려놓고 신성의 생명체를 상징하는 뜻대로 삼았으며 1~2세기 삼한시대 창원지역에서 출토된 오리 머리 모양의 토기가 많은 것도 그 당시 정착 인류에게 ‘오리’는 매우 존귀한 조류이었으며 ‘오리’라는 언어 자체가 신비성을 지녔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외에도 별신굿을 하기 위한 신성한 하회탈 재료목이 오리나무라는 것도 오리라는 명칭에 신성감이 깃들여 있는 유래에서 연유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리나무의 오리는 새(鳥類)의 오리이고, 인간의 정신세계(얼)와의 인연이 있는 명칭이지 거리의 단위로 5리라는 특정 값과 그에 대응하는 특정 나무를 오리나무로 선정해 사용했다는 것은 오리나무란 이름 자체가 20세기 초에 생겨난 이름이라는 것인데 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견해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 나무를 5리마다 표식으로 심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오

리나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식물 이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름일지도 모르는 ‘오리나무’인데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오리(五里)마다 심었다는 오리목(五里木)이란 한자 표기를 유추한 해석은 우리의 얼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를 내팽개친 것으로서 우리의 정신성이 일제강점기 때에 완전히 뒤틀리고 만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전통 결혼식에서도 오리를 앞세워 신랑 신부가 들어오고 오리 앞에서 신랑 신부가 맞절하는 등 오리가 상징하는 옛 전통문화와 연관 지어 볼 때 이곳 정릉에 자라고 있는 오리나무 소 군락은 단순하게 자라는 오리나무가 아니라 묘역 조성 시부터 대대로 생을 이어온 오리나무 숲으로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리나무는 저습지 극상림의 주인공으로 천이(遷移) 마지막 단계의 종이라서 인간 간섭이 거의 없었던 원시적이고 잘 보존된, 습지생태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된 자연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데 이곳 정릉이 지대가 낮아 장마 때 침수가 잦았던 저습지인 데다가 오랫동안 왕릉으로서 보존 관리해 온 지역이라서 원시적으로 잘 보존된 습지생태계의 오리나무 소 군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잡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정릉 옆 저지대 오리나무 숲에서 다시 공원 입구 방향으로 나오면 이 길목에 줄줄이 서 있는 또 다른 이색적인 나무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구밥나무, 이팝나무, 헛개나무, 골담초, 히어리, 두충나무가 그들입니다.

장구밥나무는 소금기와 냉해에 강하여 주로 해안가에서 많이 발견되며 제가 만난 것도 주로 남해안 일대였는데 뜻밖에도 이곳 정릉에서 만났습니다. 하얀 별 같은 꽃받침

에 황금 꽃술을 품고 있는 고운 꽃이 한창이었습니다. 장구밥나무는 4개씩 마주 달리는 주황색 열매가 마치 전통악기 장구처럼 생겨 ‘장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열매 맛이 새콤달콤하여 장구밥나무 열매로 식혜를 만들어 먹기도 했는데 열매가 한겨울 내내 가지 끝에 붙어 있어 겨울 산새들의 훌륭한 겨울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정릉 묘역에는 생각과 달리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한두 그루씩 자라고 있는 수목학습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나무도 여섯 종이 종류별로 모두 있고, 오리나무, 느릅나무 성목이 소 군락을 지어 자라고 소나무 숲이 잘 우거져 있으며 은행나무, 느티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도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으로 남도지방 지리산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국 특산종 히어리가 딱 한그루 있습니다. 히어리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01년 전남 송광사 부근입니다. 1924년 일본인 우에끼 씨가 학계에 이를 발표하고 송광납판화라 불렀는데 1966년 이창복 박사가 그 지역 방언인 히어리로 바꿔 불렀다고 합니다. 이른 봄 연한 황록색의 꽃이 총상꽃차례로 피는 히어리가 재실 뒤편에서 열매가 맺혀 한창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릉에서 재실, 역사문화관으로 연결되는 산책로에는 중국 원산이지만 오래전부터 우리 선인들과 함께했던 골담초, 두충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모과나무처럼 수피가 아름다운 노각나무, 산앵도라 불리는 이스라지, 층층이 하얀 꽃이 고운 산딸나무와 벚꽃을 닮은 꽃을 피우며 겨울 산새의 훌륭한 먹이가 되는 팔배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편 재실 앞뜰에는 참나리가 한여름의 열정을 불태우는 듯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며 흐드러지게 피어있으며 별개미취, 털별꽃아재비, 익모초, 박주가리, 금불초, 큰애기나리, 원추리가 식재되어 있어 식물원 못지않은 다

양한 풀꽃과 우리 나무가 자라고 있는 왕릉이었습니다.

## 맺는말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참으로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지방 특산식물까지 심고 가꾸어 왔으며 이토록 다양한 수목과 풀꽃이 있는데도 놀랄만하게도 전국 곳곳에 심었던 외래종 아까시나무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왕릉 관리에 세심한 배려가 따르고 우리의 초목을 중심으로 잘 가꾸어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도심의 녹색 섬, 선정릉은 초록색이 빈약하고 자연성이 떨어진 도시에 우리 전통 왕릉의 특성과 식생을 갖춘 오롯이 갖춘 왕릉이며 다양한 우리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외래종이나 원예 화훼종으로 왕릉 주변을 생각 없이 치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생식물을 중심으로 전통과 격을 갖춰 관리하는 곳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돋보이는 것은 서울 지역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특산이라 할 수 있는 병아리꽃나무, 히어리, 두충나무, 이팝나무, 노각나무, 헛개나무 등을 심어 전국적인 수목을 갖춰 비록 작은 묘역이지만 전국의 수종을 갖춘 곳으로의 의미를 부여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자연과 식물과의 교감 기회가 떨어진 현대 도시인들에게 우리 식물을 알고 관찰할 수 있는 식물원과 같은 식물 교육과 생태학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소중한 문화유적지라는 생각이 드는 선정릉이었습니다.

2015. 8. 16.